(728)

조 선

주체 106 (2017) 3

차 례

표지: 마식령스키장에서 겨울철야영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사진 안철룡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월

김치생산의 공업화실현을 위하여

인민들이 보다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월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류경김치공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해 6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개소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200일전투기간에 바로잡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심으로써 조선에서 김치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인 갖가지 김치와 장절임, 버섯가공품을 생산하고있는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류경김치공장에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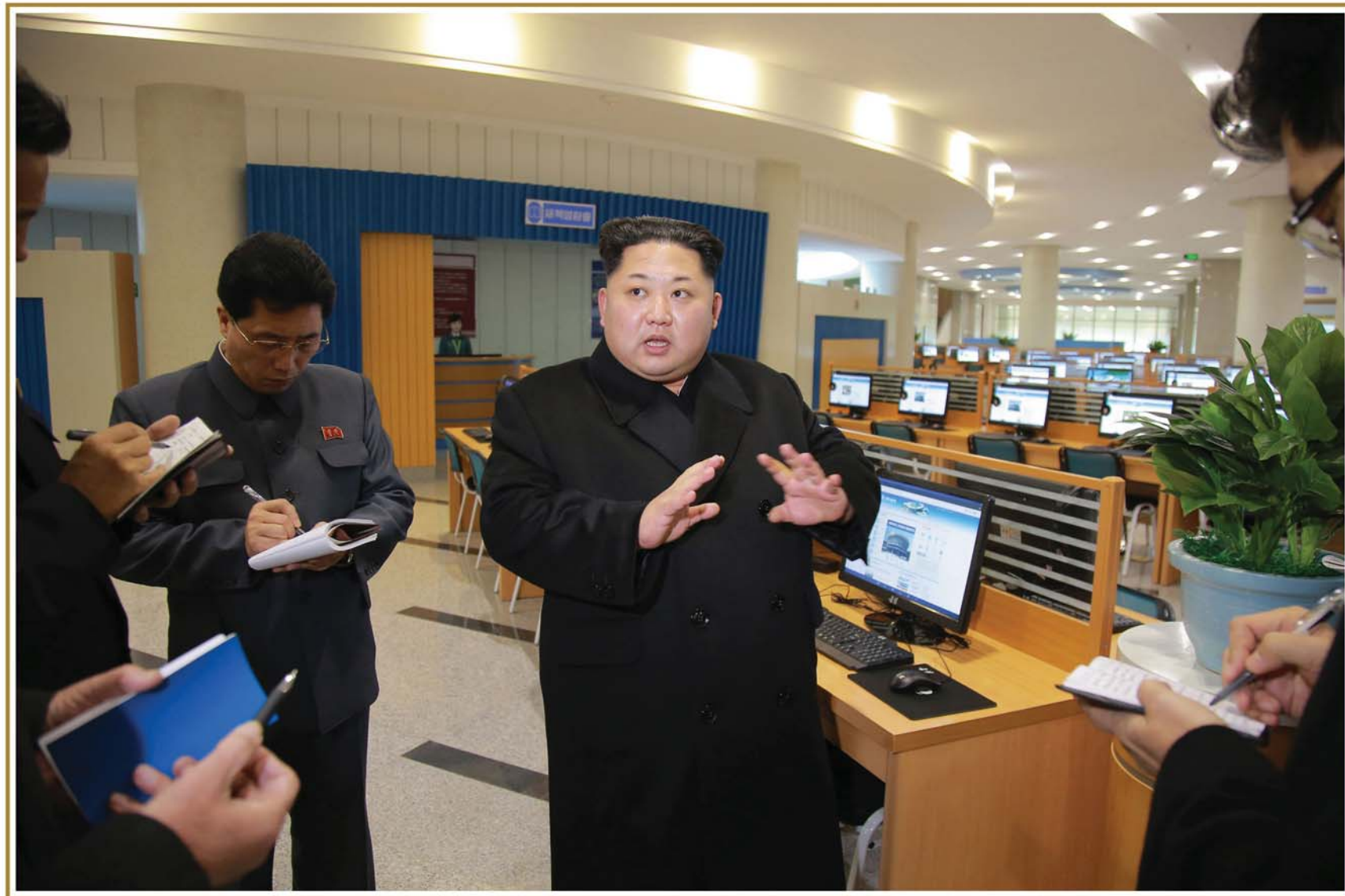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불과 반년사이에 류경김치공장이 지난해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빈틈없이 잘 맞물려졌다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또 하나 일떠세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 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들에도 현대적인 김치공장들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류경김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선김치를 으뜸가는 식품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글 김태현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월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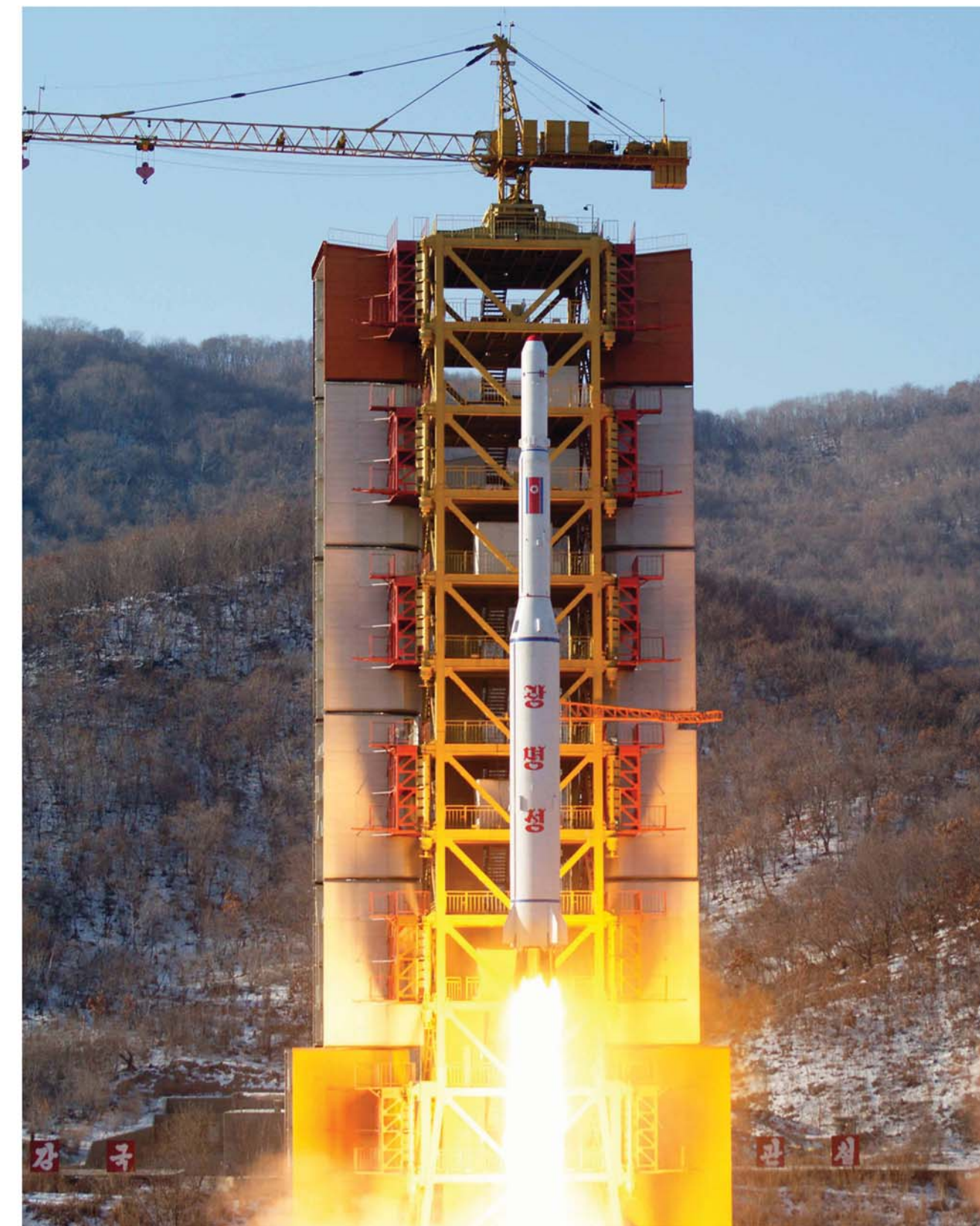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강산에 울려퍼지고있다.

한평생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문명정도와 발전추세를 환히 꿰뚫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통이 크게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 누구도 헤아릴수 없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정열과 끝없는 헌신은 조선에서의 모든 창조와 비약의 원동력이다.

인민들이 리용할 공중삭도의 첫 손님이 되시고 삼복철의 무더위에 옷깃을 땀으로 적시시며 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걸으시는분,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찾으시여 란간도 없는 골조건물을 오르시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고기배의 갑판에까지 올라 어로공들을 축하하여주시고 비린내나는 물고기도 쥐여보시며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정녕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이어 조국의 한끝까지 찾아가시고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과 열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들이 최상의

주체105(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였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할수 있게 하는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인민극장, 인민야외빙상장, 릉라인민유원지,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라선땅의 선경마을, 과학기술전당, 류경안과종합병원…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이 땅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력사를 펼치였고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북부지역에 로동당시대의 새 선경이 펼쳐지게 하였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는 군민협동작전과 대담하고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계속 일떠서고있다.

경제강국과 문명강국건설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신의 온넋과 심장으로 그 풍만한 수확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있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으며 그이와 마음도 숨결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이 땅우에 무궁번영할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신심과 열의에 넘쳐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다.

글 정경복

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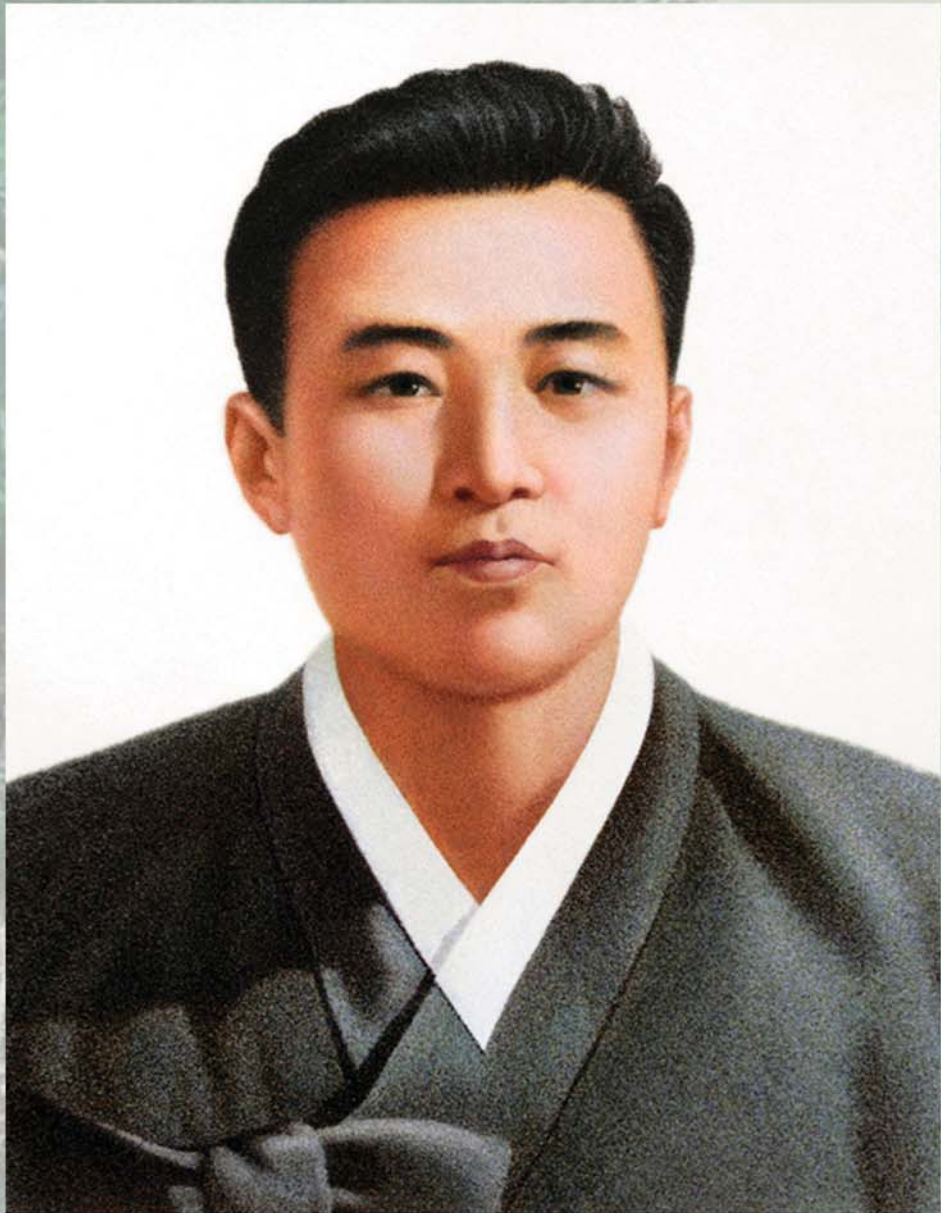
청춘과원으로 전변된 과일생산기지들에서는 해마다 과일대풍을 안아오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서 어디가나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져 자연박물관,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건축물들이 짧은 기간에 련이어 일떠섰다.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운 조선국민회

평양시 교외에 위치하고있는 강동군 봉화리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아로새겨진 유서깊은 봉화혁명사적지가 있다.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5(1916)년 3월 투쟁무대를 봉화리로 옮기시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시였다.

당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인민대중에게 옳바른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며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반일운동을 하나의 단합된 력량으로 참신하게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념원을 헤아리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새로운 혁명조직결성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신 선생님께서는 몸소 핵심들을 육성하고 군중적지반을 다져나가시였다.

봉화리사람들속에 들어가신 선생님께서는 농민들과 개별담화도 하고 밤마다 야학에 나가시여 나라가 처한 엄혹한 환경과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조선사람이라면 응당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봉화리에서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 평양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도 등 여러 지방들에도 나가시여 독립운동자들의 모임도 소집하고 군중들속에 반일계몽사업도 진행하심으로써 지하혁명조직을 무을 핵심들을 장악하고 군중적지반을 축성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2월 지하혁명조직결성을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직명칭과 투쟁목적, 과업, 활동규범, 취지서의 초안 등을 토의에 붙이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선생님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리하여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지금의 평양시 중구역 서문동)에 있는 리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력사적인 회의가 소집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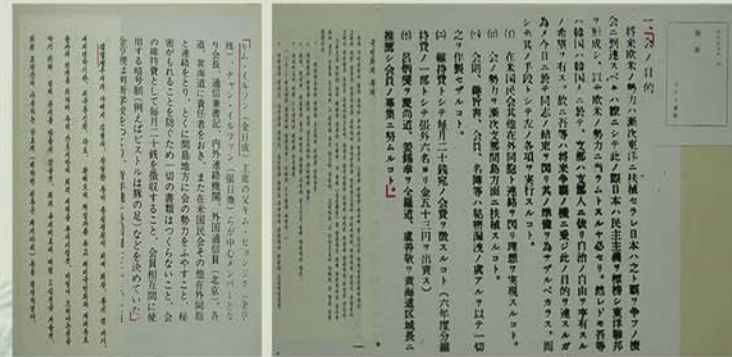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투쟁강령과 규범을 밝혀주시고 취지서를 발표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회의에서는 조선국민회의 결성을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조선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중추적혁명조직으로 되는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반일력량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옳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이후 조선국민회조직을 확대하고 광범한 군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다.

올해 3월 23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100돐이 되는 날이다.

글 김현

조선국민회결성과 관련한 자료들의 일부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조직의 확대문제를 토의하신 집

조선국민회 조직분포도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 은률지부결성모임을 지도하신 례배당

조선국민회 송오지부결성모임이 진행된 집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혁명사적비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섰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드높이 새해 주체106(2017)년을 맞이한 속에 지난 1월 5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비상히 앙양된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2017년을 가장 의의깊은 민족사적사변들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일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며 백승의 기치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대회가 끝나자 군중시위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들이 각지의 도들에서도 진행되였다.

군중대회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자강의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글 김현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의 앞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금속공업부문이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치를 들고 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증산으로 들끓고있다.

지난해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로 부른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인민경제 중요부문들과 려명거리건설장,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 등 대고조전역들에 필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총진군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철강재증산에 떨쳐나섰다.

주체철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보산제철소에서는 원료의 배합비률을 새롭게 확정하고 원료와 연료장입시간을 훨씬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생산성을 최대로 높여가고있다.

강철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고 용해준비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들은 출강회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남비예열시간을 줄이기 위한 새 기술들을 받아들이였다.

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공정간,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합리적인 생산방법과 기술혁신안들이 창조됨으로써 철생산원가가 낮아지고있다.

강철증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의속에서 생산된 철강재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보내지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가방생산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여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지난 1월 평양가방공장이 새로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평양시의 통일거리에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은 학생가방과 일반가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착공의 첫 삽을 박은 지난해 7월초부터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방대한 가방공장건설을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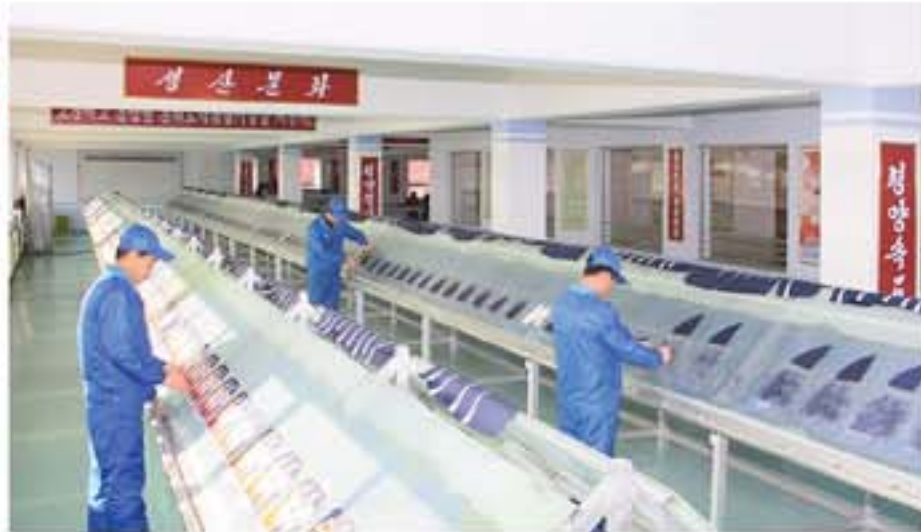
재단,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 공장의 생산공정들마다에는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하여 국산화된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공장에는 종합적인 가방생산기지답게 기술준비실과 도안창작실도 꾸려져있으며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도록 통합생산체계도 구축되여있다.

공장에서는 국내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갈의 가방들을 만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뜻이 어린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 높은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한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가지 질좋은 가방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혁신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정

도안창작실

인쇄작업장

재단작업장

품위높은 마그네샤크링카 생산

조선의 위력한 내화물생산기지인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생산적앙양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국내의 무진장한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마그네샤크링카, 경소마그네샤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면서 생산을 내밀고있다.

원료, 연료의 특성에 맞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생산을 늘이고있다.

그들은 소성로가동대수를 늘이고 원료, 연료의 특성에 맞게 계단식장입 및 요출을 비롯한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로당생산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파쇄 및 선별시간을 단축하여 질좋은 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요가 높은 경소마그네샤생산을 더욱 늘일 목표를 세우고 종전의 설비들을 현대화한데 맞게 공정별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고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들고있다.

지난해 그들은 경소마그네샤생산을 위한 대형회전로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는 한편 무연탄을 미분하여 경소마그네샤를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하여 중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미분탄의 착화률을 높일뿐아니라 제품의 여러 기술경제적지표들이 종전보다 훨씬 우월한 경소마그네샤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종의 첨가제를 개발하여 국내의 흔한 원료에 의거하여 부정형내화물들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도 마련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년산 수만t능력의 부정형내화물생산공정을 새로 꾸린 공장에서는 지금 야금로, 가열로들의 수명을 늘이고 안붙임시공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여러가지 종류의 질좋은 부정형내화물들을 생산하여 금속,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단천마그네샤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창조적열의로 하여 나라의 내화물공업의 주체화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전기용융크링카

마그네샤크링카

경소마그네샤

류산마그네시움비료

아이들의 웃음 넘친 겨울철야영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해마다 1월이면 학생소년들의 겨울철야영이 시작된다.

실내체육관 및 물놀이장, 수족관, 거울집, 전자오락실 등에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아이들이 제일 큰 기대를 안고 기다리는것은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스키타기이다.

올해에는 년초에 때아닌 비가 내린적도 드문해서 나서자란 고향과 학교를 떠나 야영소까지 직통렬차를 타고오면서도 스키를 탈수 있을가 걱정을 한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야영소에서 이미 스키복장차림을 갖춘 야영생들은 뻐스로 40분가량 달려 마식령스키장의 문주를 통과하게 된다.

눈앞에 펼쳐진 백설강산도 그러하지만 아이들의 눈길을 더욱 끄는것은 특색있는 마식령호텔이며 높고높은 산등성이들로부터 연연히 뻗어내린 멋진 스키주로들이다.

나라의 왕답게 호텔과 스키장 관리성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스키장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스키강의 및 전자도서열람실에서 해당한 지식을 배운다.

마침내 스키와 스키신발 그리고 보호안경을 비롯한 기재들을 받아안은 그들은 스키장에서 스키교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스키착용법, 평지에서의 지치기와 정지, 방향바꾸기 등 기초동작부터 차례로 익혀나간다.

남먼저 스키타기기술을 터득하려는 승벽심과 흥분으로 인한 불그레 상기된 얼굴로 저저마다 부지런히 련습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스키관광을 하던 어른들도 미소를 짓고 한동안 바라보군 한다.

스키장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마음은 눈앞에 펼쳐진 스키주로에 가있다.

물놀이장, 수족관, 전자오락실 등에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는 야영생들

마식령스키장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야영생들

하여 점차 기술이 숙련되여가는 오후때부터는 수평승강기를 타고 초급주로의 끝까지 가서 제법 스키선수의 자세를 취하고는 환성을 터치며 지쳐내리는 소년들의 수가 늘어난다.

이곳에서의 스케트와 썰매타기도 야영생들의 랑만과 기쁨, 웃음을 더 한층 자아낸다.

언제 시간이 가고 날이 저무는지 모르고 체육유희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겨울철야영의 즐거운 나날이 한생토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소중히 자리잡게 될것이다.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만을 안고 자라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비끼는것으로 하여 마식령스키장의 풍치도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이채롭게 변모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공장이 사랑하는 만리마기수들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3. 8국제부녀절 107돐을 맞는 조선녀성들속에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녀성근로자들도 있다.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남먼저 떨친 전세대들의 위훈을 이어갈 열의드높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진군길에 만리마속도창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공장의 녀성혁신자들의 일부를 소개한다.

사진 리일명 글 정기상

2직장 조사1작업반 주영미

주영미에게 있어 작업반의 기계설비들은 마치 자식이나 다름없는듯싶다.

자식의 성장과 함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는 조사기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특성을 환히 꿰뚫고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여러건의 창의고안들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장으로서 반원들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로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언제나 기대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3직장 재조작업반 김수경

처녀시절부터 작업반장으로 일해오는 김수경은 재조공정의 으뜸가는 기능공이다.

그는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효률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고있다.

그와 함께 모든 작업반원들이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부단히 이끌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견면작업반 리혜경

견면공 리혜경은 사회생활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27년동안 한 직종, 한 일터에서 일해오는 성실하고 근면한 로력혁신자이다.

비단실생산을 위한 원료보장에서 선행공정인 고치솜벗기기작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세련된 일솜씨를 지니고있는 그는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언제나 제품의 질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매해 생산계획을 남먼저 넘쳐 수행하고있다.

4직장 조사5작업반 현수향

조사공 현수향은 공장의 이름난 혁신자이다.

아름다운 비단실을 생산하는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와 애착은 그가 지금까지 매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꼼꼼하고 깐진 일본새를 지닌 그는 제품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실잇기방법을 탐구도입하여 지난해에만도 2년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올해에도 만리마속도창조의 앞장에서 계속 내달리고있다.

작업반원들은 김경희를 두고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른다.

자신과 가정보다 집단과 동지들을 먼저 위하는 고상한 품성은 그의 성격적특징이다.

비단결같은 마음씨를 지니고 작업반을 이끌어가는 그의 진정한 노력은 작업반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하고 힘있는 집단으로 자라나게 하였으며 생산에서뿐아니라 생산문화와 생활문화확립 등에서도 공장적으로 손꼽히는 단위로 되게 하였다.

1직장 선별작업반 김경희

- 평성초등학원에서 -

배움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 전국의 도들마다에 솟아나고 있다.

그중에는 지난해 11월에 준공식을 한 평성초등학원과 평성중등학원도 있다.

조선로동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학원들에는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기숙사, 체육관, 수영장, 종합편의시설 등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져있다.

원아들은 이 배움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들에서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준비해나가고있다.

앞날의 조국의 모습이 자기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된다는것이 그들이 지닌 마음이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5점을 맞는가 경쟁도 걸며 따뜻한 사랑의 해빛이 비쳐드는 교정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는 원아들이다.

과목별특성이 살아나게 꾸려진 실험실들과 실습실들에서 원아들은 배운 내용을 공고히 해나가는 실험, 실습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롱구와 탁구 등 여러 종목의 체육과 함께 예술공연도 할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수영장, 음악무용실과 미술실 등에서는 체력을 튼튼히 하고 다양한 문화적소양도 마음껏 키워가고있다.

하루공부를 마친 원아들은 훌륭하게 꾸려진 기숙사에서 텔레비죤도 보고 오락회도 하면서 행복의 웃음꽃을 피운다.

교원들과 식당료리사, 관리원들은 친부모의 심정으로 원아들에 대한 교육과 교양,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뿌리가 되려는 마음을 안고 교수교양

- 평성중등학원에서 -

사업에 모든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정보화된 교육체계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창안하여 널리 리용하고있다.

그들이 창안한 리론과 실물교육을 결합시키기 위한 다매체편집물들을 비롯하여 생동한 표상을 주는 직관물들, 토론과 론쟁시간을 많이 주어 스스로 원리를 파악하도록 하는 교수방법, 무엇이나 척척 만들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기초기술교육 등에 의하여 원아들의 실력은 부단히 높아가고있다.

식당료리사들은 자주 음식품평회도 진행하며 원아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리원들은 원아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가고있다.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여 따뜻이 돌봐주고 키워주는 학원들에서 원아들은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앞날의 기둥으로 자라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과목별특성에 맞게 꾸려진 실험실, 실습실들에서 배운 내용을 다져간다.

철도과학기술인재들이 자란다

-평양철도종합대학을 찾아서-

평양철도종합대학은 나라의 동맥을 떠메고나갈 철도운수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다.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있는 교원들

주체48(1959)년 9월 평양운수대학으로 창립된 대학은 지난 58년간 수만명의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냄으로써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자랑많은 연혁을 새겨왔다.

첫 전기기관차생산으로부터 8축전기기관차와 100t화차, 레루맞땜용접기, 비동기전기기관차 등 철도의 전기화, 중량화 그리고 철도운영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나라의 운수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졸업생들의 지혜와 열정이 수없이 깃들어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의의있는 과학적발명으로 지하전동차생산의 국산화실현에도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 기간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졸업생들속에서는 3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이 배출되였으며 7명의 원사, 후보원사와 60여명의 교수,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나왔다.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로선에 따라 주체104(2015)년 3월 평양철도종합대학으로 된 대학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대학에서는 철도운영대학과 기계공학부, 운수건설공학부 등 여러 학부들과 수십개의 강좌, 연구소, 원격교육대학, 박사원까지 가진 종합적인 철도운수부문의 과학기술양성기지로서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였다.

그리고 수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전자도서관과 현대적인 기재들을 갖춘 종합적인 실험실습기지도 꾸리였다.

대학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나라의 동맥을 움직여나가는 학술 및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다.

학생들은 훌륭한 과학기술인재가 되여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을 떠메고나가려는 포부와 희망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김태현

주행부에 대한 강의는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여주고있다.

전공분야의 선진과학기술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있는 대학생들

재령벌의 리인민병원

황해남도 재령군 동신흥리는 군이나 도적으로 소재지로부터 제일 먼곳에 위치한 리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받들려 온 나라 도처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이 솟아오르는 속에 이 외진 농촌지역에 훌륭한 리인민병원이 일떠서 치료봉사활동을 시작한것은 지난해 5월이다.

병원에는 내과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를 비롯한 림상계통의 질병들을 진단, 치료할수 있는 10여개의 치료실들과 함께 입원실, 약국 등은 물론 전문과적치료를 할수 있는 의료기구들과 진단 및 실험기구들도 원만히 갖추어져있다.

조명 및 치료용동력을 어떤 조건에서도 보장할수 있게 태양빛발전체계도 세워져있는 병원에는 더우기 조선의 보건부문의 말단단위로서는 처음으로 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까지 도입되여있다.

하여 지난 시기 이곳 의료일군들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로의 파송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던 일들이 없어지고 중앙과 도의 유능한 의료진들과의 협의속에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인 치료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까지 갖춘 새 병원을 건설해준 이후부터 동신흥리에서의 병발생률과 상급병원에로의 파송률은 계속 줄어들고있다.

주민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들으며 원장 리수남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 계속 분발하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최호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도입되여 중앙과 도의 유능한 의료진들과의 협의속에 과학적인 치료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병원에는 림상계통의 질병들을 진단. 치료할수 있는 치료실들과 입원실은 물론 전문과적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과 설비들도 갖추어져있다.

의사들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활동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감독, 태권도선수들

1. 림정심
기관차체육단 력기선수

2. 리세광
4. 25체육단 기계체조선수

3. 김소향
소백수체육단 축구선수

4. 리향심
압록강체육단 축구선수

5. 김국향
4. 25체육단 력기선수

6. 최효심
기관차체육단 력기선수

7. 엄윤철
압록강체육단 력기선수

8. 김송이
압록강체육단 탁구선수

9. 김성국
압록강국방체육단 사격선수

10. 박명원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사격선수

1. 김춘희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

2. 신명수
4. 25체육단 기계체조감독

3. 황영봉
리명수체육단 축구감독

4. 신정복
려명체육단 축구감독

5. 김명호
4. 25체육단 력기감독

6. 로현철
압록강체육단 력기감독

7. 김진명
압록강체육단 탁구감독

8. 김철호
압록강국방체육단 사격감독

9. 리승일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사격감독

10. 박순녀
상업성체육단 교예체조감독

1. 함수경
남포시태권도선수단 선수

2. 박미향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

3. 림위석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4. 김지향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5. 김향심
평안북도태권도선수단 선수

6. 김수련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7. 최수련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8. 김남수
자강도태권도선수단 선수

9. 림주혁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 선수

10. 리성훈
황해북도태권도선수단 선수

일터에 넘치는 체육열풍

《평양주》, 《고려술》을 비롯한 명주를 생산하는것으로 널리 알려진 대동강식료공장이 생산적앙양과 함께 체육열풍으로 웃음과 랑만에 넘쳐 약동하고있다.

매일 아침 공장구내에 울려퍼지는 경쾌하고 박력있는 음악선률에 맞추어 진행되는 건강태권도와 대중률동체조가 종업원들의 첫 일과로 되고있다.

전투적기백이 넘쳐나는 동작들과 매력있는 률동들은 그들의 락천적인 생활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체육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제손으로 멋들어지게 꾸려놓은 체육장들에서 창조의 보람과 함께 체육활동의 랑만을 꽃피우며 종업원들속에서는 체육사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간다.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로 시작된 공장의 대중체육활동은 휴식시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체육경기들로 고조를 이룬다.

배구장에서 가공작업반과 원료작업반이 처넣기와 공받기, 련락과 타격, 막기 등 치렬한 배구경기를 하고있을 때 탁구장에서의 발효작업반장과 공무작업반장의 탁구경기는 그들의 높은 탁구기술로 하여 모두의 절찬을 자아낸다.

응원 또한 장관이다.

자기가 마치 감독이라도 된듯 선수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열심히 경기를 지도하는가 하면 멋진 타격이 성공할 때마다 몸짓, 손짓까지 해가며 경기를 응원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배구, 롱구, 탁구, 정구, 바드민톤경기들에서의 드높은 합성은 하루일을 마친 저녁에도 온 구내를 뒤덮는다.

이렇게 벌어지는 체육경기를 통해 사람들 누구나가 혁신을 약속하고 말없는 경쟁을 한다.

우리 작업반이 제일이라고, 경기에선 양보가 없다고 하면서 진행되는 경쟁속에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도 더욱 꽃펴나고 생산성과도 부쩍 올라가고있다.

주체104(2015)년에는 공장에서 새로 개발생산한 《고려술》이 12월15일품질메달을 수여받는 영예도 지니였다,

나라의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해갈 열의드높이 지금 대동강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사진 진영호 글 김선경

방직공처녀들을 위한 료리실습장

3년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처녀로동자들을 위한 로동자합숙이 훌륭히 일떠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었다.

이곳에 지난해 로동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료리실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주체103(2014)년 12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합숙에 입사한 합숙생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면서 처녀들이 시집갈 준비를 할수 있게 료리실습장을 꾸려주도록 하시였으며 그후 수천점의 집기류와 주방도구들도 보내주시였다.

하여 연건축면적이 1 300여㎡에 달하고 10여개의 료리실습실, 식료가공실 등을 갖춘 료리실습장이 건설되게 되였다.

복도며 매 료리실습실들에는 김치만들기, 두부가공료리, 토장국의 유래를 비롯한 료리가공기술과 료리상식들을 알려주는 직관판들이 게시되여있다.

료리실습장에서 처녀들은 료리감의 고르기와 다듬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료리가공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료리실습장은 처녀들의 료리실습으로 날마다 흥성인다.

민족음식인 평양랭면을 만드는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깍두기며 통배추김치를 담그는 처녀들도 있다.

어떤 처녀들은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별식을 만들어보기 위해 자기들의 재간을 다 발휘하여 음식을 가공하는데 여념이 없다.

료리를 한 다음에는 서로가 맛도 보며 누구의 료리솜씨가 제일인가 《품평회》도 진행하면서 웃음꽃을 피운다.

사진 안철원 글 김옥경

고구려무덤떼 새로 발견

지난해말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서 규모가 큰 고구려무덤떼가 새로 발굴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은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 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업과정에 천덕리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2㎞정도 떨어진 언덕지대 185㎡구역안에서 4렬로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있는 근 30기에 달하는 무덤들을 찾아냈다.

개별적인 무덤들이 기본무덤구역밖에서도 발견된것으로 보아 원래는 수백기의 무덤들이 집중된 큰 규모의 무덤떼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무덤무지들은 대부분 직경이 10m, 높이 2m정도이고 제일 큰 무덤무지는 직경이 17m, 높이 2. 4m정도이며 무덤들 호상간의 거리는 10～20m정도이다.

무덤들은 지상에 축조되여있는데 외칸 또는 쌍칸으로 된 돌칸흙무덤들이다.

무덤칸의 바닥은 진흙을 다지거나 자그마한 강돌, 판돌을 깔고 그우에 회미장을 하여 만들었으며 벽은 강돌과 판돌을 쌓아올려 만들었다.

천정은 궁륭식 혹은 사아식천정(네면경사식의 천정)인데 대부분 허물어졌다.

쌍칸돌칸흙무덤은 한 무덤무지안에 두개의 무덤칸이 있는 무덤으로서 축조형식은 외칸돌칸흙무덤과 같다.

무덤떼에서는 사람뼈, 말뼈와 함께 청동숟가락, 청동장식품, 은판을 씌운 쇠관못, 쇠관고리손잡이, 회색도기 등 여러가지 유물들이 나왔다.

천덕리고구려무덤들과 여기서 발굴된 유물들은 천년강국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를 새롭게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박병훈

력사유적

안불사 극락보전

함경남도 금야군 동흥리에 있는 안불사는 1393년에 세운 절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해 다 마사지고 현재는 1843년에 세워진 극락보전만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다.

안불사 극락보전은 정면 3간(9. 89m), 측면 2간(7. 52m)의 겹처마배집으로 되여있다.

건물은 정면 가운데간을 좌우 측간보다 약간 넓게 하면서 문살의 대조적효과로 중심을 강조하였다.

두공의 바깥제공은 짧게 돌출되였으나 휘임이 강하고 첨차까지 련꽃모양의 조각장식으로 되여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후면은 정면과 대조적으로 기둥우에 액방을 건너지르고 두공으로 간결하게 꾸미였다.

배집건물에서 포식두공을 얹은 구조가 흔치 않은데 정면은 포식, 후면은 익공식으로 서로 다르게 꾸민 수법이 특색있다.

천정은 소란반자와 빗반자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빗반자는 거의 수평이면서 넓은 면을 차지한다.

소란반자에는 학과 련꽃을 섬세하게 그리고 빗반자에는 넓은 면에 어울리게 활달한 필치로 중들, 두꺼비를 낚는 인물, 피리를 부는 인물 등 다양한 그림들로 장식하였다.

건물은 규모가 작은 배집이지만 화려하게 꾸민것으로 하여 이채를 띤다.

안불사 극락보전은 당시의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력사유적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 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훈

낸곳：© 조선화보사 2017 주소：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781112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내 나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naenara. com. 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뒤표지：누구나 즐겨찾는 마식령스키장
사진 리광성, 박명일